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제주 청년작가 지원 온도차

새해 청년작가 발굴·지원 체감도 높아지나

도문화진흥원 청년작가전 1억원 확보로 화려한 부활

도립미술관 '영 앤 이머징...' 제주현대미술관 이관 계획 단순 전시 넘은 지원책 필요

사반세기 역사를 지닌 제주청년작가전이 화려한 부활을 예고했다. 제주청년작가전을 주최하는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은 새해 관련 예산 1억원을 확보했다며 그만큼 경쟁력을 높였다고 밝혔다. 그에 비해 시각예술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제주지역 공립미술관은 청년작가 발굴과 지원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이다. 제주현대미술관이 전년도 제주도립미술관에서 벌인 '영 앤 이머징 아티스트 전시' 바통을 이어받을 거라는 소식 정도다.

▶평론가와 매칭 비평 프로그램 운

영·'전화위복(轉禍爲福)'은 이렇 때 쓰는 말 같다. 지난해 느닷없이 중단됐던 도문화진흥원 제주청년작가전(본보 2019년 1월 30일자)이 올해는 예년보다 4배 가량 사업비가 늘어난 1억원을 들여 새롭게 탄생한다. 현행 복원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창작비 지원의 대폭 확대, 평론가 매칭 프로그램 운용 등을 시도할 예정"이라며 달라질 제주청년작가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본보 보도를 통해 25회 이어온 제주청년작가전 예산이 누락된 사실이 알려지자 도문화진흥원은 뒤늦게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보겠다고 발전방안 모색 전문가 토론회, 청년작가전 참여 작가 간담회 등을 열었다. 그 결과로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도문화진흥원 운영조례 개정으로 우수 청년작가 개인전 대관시 사용료를 감면 해주기로 했고 제주청년작가전 운영 규정을 손질해 자문위원회 구성, 출

품 자격 만 39세 하향 조정, 포트폴리오 등 사전 심사 강화 조항을 뒀다. 사업비가 종전보다 크게 증가하면 서 작가 지원비, 평론, 홍보비 지원도 가능해졌다. 큐레이터·평론가와 청년작가를 이어주는 1대 1 매칭 비평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창작스튜디오 입주 자격 등 부여=문화회관 전시실을 운영하는 도문화진흥원의 이같은 행보에 건취 공립미술관은 주춤한 모양새다. 지난해 유일하게 청년작가 사업을 운영했던 도립미술관은 '영 앤 이머징 아티스트' 전시를 저지리 제주현대미술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현대미술관은 이 사업에 더해 지역 네트워크 교류전 등을 통해 제주 청년작가 참여를 늘릴 예정이다.

도립미술관은 앞서 제주·서울 프로젝트 전시를 통해 역량을 제주시청년작가 지원에 알렸다. '제주스타트업 아티스트'란 이름으로 제주

도미술대전 수상 작가 3명이 참여하는 서울 초청 전시를 개최했고 대안공간 등에서 별도 선정 과정을 거친 12명의 제주 작가 작품을 소개했다.

다른 지역 공립미술관의 경우 청년작가 발굴, 전시를 넘어 작품 제작비, 평론가 매칭, 창작스튜디오 입주 자격 부여, 국외 레지던시나 기획전시 추천 등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미술계에 진출시키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미술관도 있다.

도문화진흥원은 이번에 제주청년작가전 활성화 계획을 내놓으면서 도립미술관, 제주문예재단, 제주미술협회, 도내 대학 등과 협약해 우수 청년작가 우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청년작가 지원책을 두고 "가짓수는 많은데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기관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지속 가능한 대책이 마련될지 관심을 모은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김윤주의 '무사-담다.'

모란 핀 그릇에 당신의 안녕 기원

김윤주 개인전 '무사(無事)' 1월 한달간 아트 인 명도암

그는 3년 전까지 '경단녀'였다.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 과정까지 마쳤지만 결혼과 육아로 더 이상 붓을 잡기 힘들었다. 다시 작업을 시작한 건 아이 둘이 차례로 대학에 입학하면서다. 1993년 개인전을 끝으로 오랜 기간 휴식한 뒤 약 25년이 흘러 2017년에 다섯 번째 개인전을 펼친 배경이다. 그 해부터 거침이 없었다. 2018년 한해에만 다섯 차례 전시를 가졌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동지를 틀고 1년째 제주살이를 이어가고 있는 김윤주 작가. 그가 강부인 작가가 운영하는 제주시 봉개동 '아트 인 명도암'에서 열두 번째 개인전을 열고 있다.

이번 개인전은 3년 전부터 붙들었던 '무사(無事)' 연작으로 채워졌다. 2층 갤러리에 소품 위주로 걸린 그의 작품엔 엄마로 보낸 지난 시간이 고스란히 투영됐다.

"아무일 없이 지내는 이 시간이 그

저 고맙고 행복하다. 내 아이와 함께 했던 벼락과 천둥의 지고한 시간들은 지금 이 상자 속에서 모든 이들의 무사를 간절하게 기도하며 모란처럼 활짝 핀 만족과 이해가 삶의 흐름의 한 부분이 되길."

작가 노트에 살림을 살아야 하는 '여성' 작가의 고단함이 읽힌다. 뒤돌아보면 위태로운 순간이 많았지만 그래도 무사히 그 일상을 건너왔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작가는 작품에 그 마음을 실었다.

그는 세월의 지혜를 품은 듯한 오래된 나무판을 재료로 쓴다. 그릇, 등, 가구 형태 등을 모시천으로 제작한 후 먹물과 안료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비즈와 수를 놓았다. 김 작가는 무언가를 담는 그릇이나 가구 등에 풍요와 다산을 뜻하는 모란, 장수와 건강을 의미하는 거북이를 그려넣었다.

새해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그릇이나 가구에 놓인 그같은 복된 기운을 꺼내다가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2일 시작된 전시는 이달 31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4)727-1253.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객석·무대 벽 허문 새해 첫 실내악

비우다 하우스콘서트 트리오김·곽나영 연주

연주자의 숨소리까지 잡힐 듯한 음악회가 있다. 이달 11일 오후 5시 서귀포시 색달중앙로에 자리잡은 제주스테이 비우다에서 열리는 하우스콘서트다.

비우다는 그동안 객석과 무대의 경계가 없는 작은 공간에서 하우스콘서

트를 열어왔다. 청중과 연주자 사이의 거리는 고작 1~2m다. 관객들은 객석 의자가 아닌 바닥에 둘러 앉아 공연을 즐기면서 악기의 떨림까지 느낄 수 있을 지 모른다. 연주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새해를 열며 기획된 이번 하우스콘서트는 정상급 연주자로 평가받는 김상진, 김민지, 김다미로 구성된 트리오 김과 오보이스트 곽나영이 초청됐다. 이들은 모차르트의 '현악 트리



비우다의 하우스콘서트에 출연하는 트리오김과 오보이스트 곽나영.

오를 위한 디베르티멘토 작품 563'과 '오보에 4중주 작품 370', 펜데레츠키의 '현악 트리오', 도호나니의 '현악 트리오를 위한 세레나데'를 들려줄 예정이다.

입장료는 어른 2만5000원, 청소년과 어린이 5000원,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예약 문의는 이메일(reservation@biuda.kr)이나 전화(064-739-5004)를 이용하면 된다.

진선희기자

문화가 쏘다

빛의 벵커 제휴 할인 이벤트

제주 본태박물관과 빛의 벵커가 관람권 제휴 할인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본태박물관 유료 관람권을 소지하면 빛의 벵커 10% 할인, 빛의 벵커 유료 관람권을 지니면 본태박물관 관람권 20% 할인이 적용(1매당 1인 할인)된다. 빛의 벵커 반 고흐전이 종료되는 10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다. 문의 064)792-8108.

귀일중 1학년 시집 발간

귀일중학교(교장 김성룡)는 1학년 자유학기 활동의 하나로 학생들의 창작 활동을 엮은 시집 '꿈나라 여권'을 발간했다.

지난달 26일 자유학기 발표회를 통해 첫선을 보인 시집에는 1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풀어낸 시가 담겼다. 귀일중학교는 "1학년 전체가 참여한 시집을 나눠주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다"고 했다.

동녘도서관 로봇교실 운영

동녘도서관이 '2020 무한상상 로봇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로봇교실은 초등학교 4~6학년 15명을 대상으로 오는 2월 6일부터 28일까지 목·금요일 운영된다. 교육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이해, 코딩 로봇대위, 자율주행자동차, 날아라 드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이달 7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서귀포도서관 문집 '글내음'

서귀포도서관이 2019년 문집 '글내음' 26호를 발간했다.

이번에 나온 '글내음'은 서귀포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동아리 회원들이 한 해 동안 꾸준히 쓴 시와 시조, 산문, 독후감 등의 문학작품과 도서관 프로그램 참가 수강생들의 후기로 채워져 있다. 서귀포도서관 측은 "'독서동아리 회원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림형제 명작 '브레멘 음악대' 무대화

그림형제의 명작 '브레멘 음악대'가 무대 위에 되살아난다.

이달 11~12일 오후 1시와 3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이 작품엔 송현지 동화 구연가, 모래로 세상을 그리는 감성그림 류 아트리움 대표인 류희 작가, 영화 '지슬'의 음악감독을 지낸 전송이 작곡가, 방송으로 낯익은 "독서동아리 회원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넘치는 해설, 배우들의 익살스런 연기에 더해 샌드 애니메이션으로 극의 배경과 동물의 디테일을 보여준다. 동물들의 음악대 공연은 라이브 밴드로 구성해 들려준다.

제작을 맡은 아이잡컴퍼니는 "아이들에게 일방적인 교훈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즐기는 가운데 무언가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1688-4878. 진선희기자

대한사람의 겨울여행

강원도 무장애 여행

강릉 | 고성 | 속초 | 양양

무장애 여행 대상자 장애인, 65세이상(1955년 이전 출생), 초등학교 4학년 미만 어린이, 임산부, 외국인을 최소 1명 동반하는 최대 4인 이내의 여행객

포함사항 및 특전 국내선항공 및 현지교통, 5성급 특급호텔 숙박 1회(2박3일에 한 함), 식사(전 일정 조식 및 중식, 자율식식 1~2회), 강릉~정동진 열차 탑승 체험 및 테라로사 커피박물관 해설사투어(2박3일코스에 한 함), 자율식식 강원상품권 증정(1만원~2만원)

문의 퍼시픽투어 064-747-8099, 제주홍익여행사 064-746-2200, 굿모닝제주투어 064-723-3350

구분	화요일 출발	금요일 출발
2박 3일	₩ 275,000	₩ 315,000